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덕적 규범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유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상도(常道)’와 ‘권도(權道)’로 설명하고 있다. 상도는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이고,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으로서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 ㉠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이다.

도(道)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다. 상도는 도를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인(仁), 의(義), 예(禮)와 같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데, 이때 권도가 필요할 수 있다.

맹자는 권도를 일종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 해법으로 제시한다. 맹자는 “남녀 간에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음은 예(禮)이고,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權)이다.”라고 하였다. 남녀 간에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상도에, 형제의 부인을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한다. 상황의 위급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 중 스스로 선택한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권도가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권도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맹자의 말에서는 권도에 해당하는 규범이 상도인 ‘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권도가 상도에 반하거나 또는 예가 아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맹자의 관점에서 상도와 권도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국 모두 도이다.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 아니라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위의 상황에서 남녀 간에 손을 잡는 행위 자체는 상도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 행위는 결국 생명을 구하여 도를 실천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권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보며 매우 중시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상도를 따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병자호란 당시 청이 조선에 제시한 강화 조건은 조선이 ㉢ 고수해 왔던 명에 대한 의리, 곧 대명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에 ㉣ 척화론자들은 대명의를 지켜야 하므로 청과의 화친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당대인들은 조선과 명을 군신(君臣)이자 부자(父子)의 의리가 있는 관계로 보았고, 특히 임진왜란 때 명의 지원을 받은 후 대명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척화론자들은 불의로 보존된 나라는 없느니만 못하다고까지 하면서 척화론을 고수하였다. 이때 이들이 우려한 것은 명의 ㉤ 문책이라기보다는 대명의리라는 보편적 규범의 포기야 따르는 도덕 윤리의 붕괴였다고 할 수 있다. 척화론은 실리의 문제를 초월한 의리의 차원에서 당시뿐 아니라 후대에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반면 ㉥ 최명길 등의 주화론자들은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명길도 대명제의 의리가 정론(正論)임을 인정하였고, 강화가 성립된 후에도 대명제를 계속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논거를 들어 청과의 화친이 합당한 판단임을 주장했다. 우선 그는 척화론자들의 ‘나라의 존망을 헤아리지 않는 의리’를 비판하였다. 중국 후진의 고조는 제위에 오를 때, 이민족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힘을 빌리며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런데 다음 황제 때에 신하 경연광이 요의 신하라고 칭하는 것을 그만두자는 강경론을 주도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요가 침입해 후진은 멸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학자 호안국은 천하 인심이 오랑캐에게 굽힌 것을 불평하고 있었으니 한번 후련히 설욕하고자 한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정치적 대처 면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 속죄될 수 없다고 경연광을 비판했다. 최명길은 이 호안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신하가 나라를 망하게 하면 그 일이 바르다 해도 죄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명길은 조선이 명으로부터 중국 내의 토지를 받은 직접적인 신하가 아니라 해외에서 조공을 바치는 신하일 뿐이기 때문에 명을 위해 멸망까지 당할 의리는 없으며 조선의 임금은 백성과 사직을 보전할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춘추』에 따르면 신하는 먼저 자기 자신의 임금을 위하여 하므로, 조선의 신하가 명을 위하여 조선을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마땅한 의리라고 하였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이 실현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의 역사적 한계를,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의 이론상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에 대한 사상가의 견해를,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에 대한 정치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역사적 현실에 적용된 사례를,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이 학문적 논의의 주제가 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5.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맹자는 도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도를 굽히는 것이 권도라고 보았다.
- ② 유학에서는 도를 형이상학적 원리와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으로 보았다.
- ③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도덕규범으로 인, 의, 예와 같은 것이 있다고 보았다.
- ④ 맹자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⑤ 맹자는 상도와 권도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속성이 있다고 보았다.

6. (가)의 맹자와 <보기>의 칸트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칸트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으로서의 도덕규범을 제시하였다. 가령 칸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도덕규범이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은데,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① 맹자는 칸트와 달리, 도덕규범을 통해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결과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맹자와 달리, 상황에 따라 어떤 도덕규범을 지켜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맹자와 달리,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④ 맹자와 칸트는 모두, 보편적인 도덕규범보다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⑤ 맹자와 칸트는 모두, 생활 속에서 도덕규범을 어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본질적인 가치를 얻게 될 때도 있다고 보았다.

7. 호안국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 ① 이민족이 세운 나라의 힘에 의존함으로써
- ② 이민족의 나라에 자존심 없이 신하를 자처함으로써
- ③ 이민족의 침입에 대해 설욕할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 ④ 이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국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 ⑤ 이민족의 나라라고 해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적대함으로써

8. (가)를 바탕으로 (나)의 ㉠,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라를 보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 것은 도덕규범에 있어 상황론보다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이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 대명어리는 당대인들에게 일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어.
- ③ ㉡이 『춘추』의 내용을 언급하며 신하가 지켜야 할 의리를 논한 것은 실행 동기를 따지지 않고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논의로 볼 수 있어.
- ④ ㉡이 대명어리가 정론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과 화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은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이 나라의 보전을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권도를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9.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
- ② ㉡: 해내기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푸는 방법.
- ③ ㉢: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킴.
- ④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 ⑤ ㉤: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앴.

[10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영업비와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재무비로 구성된다. 영업비는 다시,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변동비와 설비나 사무실의 임차료 및 유지비용, 직원의 임금 등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영업고정비로 구분된다. 영업고정비는 기계 설비의 구입, 공장 신설, 시설 확장 등과 같이,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그런데 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때로 영업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영업위험은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기업은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이용되는 도구가 바로 영업레버리지도이다. 영업레버리지도는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공헌이익이란 매출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헌이익에서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수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영업레버리지도} = \frac{\text{공헌이익}}{\text{영업이익}} = \frac{\text{매출액} - \text{영업변동비}}{\text{매출액} - \text{영업변동비} - \text{영업고정비}}$$

위 수식은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영업레버리지도가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 10억 원, 영업변동비가 6억 원, 영업고정비가 2억 원이라면, 이 기업의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인 4억 원이 되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와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인 2억 원이 된다. 따라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인 영업레버리지도는 2가 되며, 이는 10%의 매출액 증감이 있을 때, 영업이익은 그 2배인 20%의 증감이 됨을 뜻한다.

영업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생산 규모의 확대에 의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단위생산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되어, 매출액이 증가할 때, 종전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유지할 때보다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할 때에는 영업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의 감소 폭이 더 커진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영업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발